

# “다문화가정 청소년 돕고 보듬어야죠”



민영돈(왼쪽) 총장과 가수 인순이.

## 조선대, 가수 인순이 설립 '해밀학교' 다문화학생 지원 협약

교육 및 기자재지원 등 협력관계 구축  
양 기관 발전 위해 상호 사업 진행도  
“뜻 깊은 일 다각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조선대학교가 13일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가 설립한 해밀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밀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로, 인순이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순이는 지난 2012년 10월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사람들'을 설립한 뒤 2013년 4월 개교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및 기자재 지원, 인적 교류 등을 진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

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원활한 교육연계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기자재 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SW사고 증진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사업 진행 등이다. 인순이는 “전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역사가 흥미롭다”며 “해밀학교도 조선대학교의 설립이념처럼 개성과 자유가 살아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성장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국민들에게 노래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김 이사장을 직접 뵈어서 기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뜻 깊은 일에 헌신하는 모습도 존경스럽다”면서 “조선대학교는 해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문경서 달려온 전남대 원로 동문의 모교사랑



### 김진영 원장 2000만원 기탁

경북 문경에서 가족병원을 운영하는 전남대학교 원로 동문이 전남대에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진영 원장(87·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은 지난 12일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정병석 총장에게 “디지털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써 달라”며 2000만원을 건넸다. 김 원장은 기부를 위해 영업용 택시를 타고 경북 문경에서 모교인 전남대학교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한다. 김 원장은 “비록 오랫동안 멀리서 살아 왔지만,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출신으로서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우연한 기회에 모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희미해진 추억을 더듬으며 행복을 느껴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영 원장은 전남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한 53학번이자, 제1회 졸업생이다. 대학 졸업 후 한 때 공무원으로 일하다 현재 경북 문경에서 가족병원 개업의로 진료하고 있다. 정병석 전남대총장은 “원로 선배께서 오랜 객지생활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큰 힘을 보태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서구 화정3동 주민자치위 중·고생 5명에 장학금



광주 서구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일호)·보장협의체(위원장 김승익)·통장단(회장 최영신)이 지난 12일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주민자치위원회·보장협의체·통장단 회비로 마련했다. 올해는 지역 중·고등학생 5명에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가족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화정3동 주민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50명의 학생들에게 169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일호 화정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화정3동이 더욱 따뜻한 자치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사학연금 청아회, 아동센터에 방역물품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여직원 모임단체인 '청아회'는 최근 나주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사학연금 제공>

##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정의 달 맞아 요양원 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나연) 샐러드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12일 동구 롯데요양원을 방문, 간식과 생활용품 전달하고 방역봉사를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 남자의 기억법(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영정	00 인간극장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UHD 스테이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테레투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45 아기상어 울리 두루두루			00 뉴스브리핑
[3]	00 출동! 유추구조대 3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30 차종우물 한국 유망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전국 TOP 10 가요쇼(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영혼수선공(재)	55 폰대인턴 라떼는 말이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55 5·18 40주년 특집 시리즈M	
[10]	0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55 더 라이브	00 영혼수선공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테이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살림하는 남자들(재)	05 100분 토론	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0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지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 EBS1

07: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2:10 경이로운 지구	17:45 허풍선이 음악쇼
07:15 애코와 친구들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00 명의	19:00 말괄량이 삤삤
07:45 개구쟁이 스머프	13:50 EBS 스페이스 공감	19:30 최고대! 후기심씩지
08:00 당동댕 유치원	14:40 아기 동물 귀여워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해오와 해오	20:00 극한직업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1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레인보우 루비	15:25 애코와 친구들(재)	<척도와 오로라 사이, 에카도르 캐나다 -설국의 맛, 메이플과 오로라>
09:15 토끼비 가족(재)	15:55 토끼비 가족(재)	21:30 한국기행
09:30 몰랑	16:10 레인보우 루비(재)	<오월의 부엌 4부 오매! 밥정 들었네>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25 워든지 뮤직박스(재)	21:50 다큐 잇!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0 경이로운 지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띠띠뽀 띠띠뽀(재)	23:45 EBS 명강
12:00 EBS 정오뉴스	17:35 몰랑(재)	

  

知天命이 보는 <b>오늘의 운세</b> 5월 14일(음 4월 22일 丁巳) ☎ 010-9790-8237
36년생 아무리 살펴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48년생 조건을 남남이 고려한다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60년생 면밀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2년생 성심으로써 노력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84년생 예정된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96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76
37년생 한 마디로 기가 막히리라. 49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61년생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다. 73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85년생 내버려 두고 상관없다. 97년생 생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3, 78
38년생 갈부 지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50년생 힘들겠지만 결실이 많고 알할 것이다. 62년생 명확해야만 뒤탈을 없앨 수 있다. 74년생 도전에 불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86년생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98년생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67, 90
39년생 이제 헛수고는 그만 하는 것이 나으니 미련을 버려라. 51년생 쇠는 뜨거울 때 두드러라. 63년생 표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75년생 형국이 중도에 급변할 수 있는 판세이다. 87년생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99년생 폭 넓은 변수를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9, 52
40년생 가까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게 될 것이 훨씬 더 많다. 52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64년생 상당한 거리를 뜬 채 주시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8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시기이다. 00년생 급히 손절해야 할 부분이 보이니 지체 없이 조치하라. 행운의 숫자 : 08, 93
41년생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53년생 앞에서도 빠져들 수 있느니라. 65년생 이미 물 건너 가버렸다. 77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89년생 길보다 흥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01년생 파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2, 59
42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이니라. 54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66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78년생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후를 가려야 할 때이니라. 90년생 미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02년생 집착하다보면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71
31년생 누적된 모순이 보인다. 43년생 상대의 입장에 고려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리다. 55년생 경중을 따라 선후를 가려야 할 때이니라. 67년생 예상 밖의 문재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79년생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손을 쓰면 소용이 없다. 91년생 밤샘한다면 응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3, 67
32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니라. 44년생 마구 뒤쫓아 있을 수도 있으니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후를 가리는 것이 유리하다. 56년생 얽혔던 실태가 풀리겠다. 68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다. 80년생 운택한 기운이 들고 있다. 92년생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행운의 숫자 : 33, 77
33년생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함께 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아니 한다. 45년생 대책을 강구 해야겠다. 57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 해야만 할 시점이 놓여 있다. 69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81년생 백마디의 말보다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낫다. 93년생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56
34년생 고통을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46년생 보류하다가 결정한 시기를 놓친다. 58년생 추진하면 성사될 것이다. 70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82년생 정리하고 단정해 보자. 94년생 연결되는 점점에서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0, 96
35년생 앞잡이 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47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너무나 공허하겠다. 59년생 암초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71년생 원리원칙을 고수할 일이 아니니 융통성 있는 수완이 요구 된다. 83년생 상대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95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저 소모적인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9, 75